



바다 속 인류의 미래… 내년 완도에서 만난다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4월 11일~5월 11일



완도가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해조류 관련 제조·유통·판매·연구로 이어지는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해조류 메카로써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것은 물론 식품, 미용, 소재, 의약,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해조류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완도군은 24일 “해조류는 식품만이 아닌 미용, 종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제재, 바이오에너지 등 각종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는 완도가 미래 해조류산업의 전진기지로 부상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해조류제품을 생산하는 100개 업체가 참가하는 전시판매 행사와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국내산 해조류제품의 수출시장을 여는 것은 물론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 주관의 국제해조류학회의도 개최해 미래 해조류 관련 산업도 살펴볼 방침이다. 세계에서 수산업 선진

식품·의약·바이오 고부가가치 주목

100개 업체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이참·최경주 등 홍보대사로 활약

향우들 ‘고향방문의 해’ 지정 지원

20개 도시를 선정해 박람회 기간 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EMCC)도 개최하기로 했다.

완도 최초로 열리는 국제박람회인 만큼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민과 향우들의 관심과 지원도 잊따르고 있다.

광주은행은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와 관련해 공식 앤솔러, 로고, 마스코트 등 휴장 사용과 입장권 판매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금까지 전안·논산고속도로(주), NH전남농협 등 11개 기관, 단체,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입장권 판매와 관람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완도 출신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방송인 오정해, 조혜련씨, 인기연예인 유지인, 이보희씨 등 유명인들도 홍보대사로서 박람회 성공을 돋고 있다.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4월 11일~5월 11일까지 완도읍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시, 체험, 국제학술행사, 이벤트 등 해조류 관련 행사를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이어질 예정이다.

박람회 전시장은 완도형의 아름다

이끌어가는 든든한 뿌리 산업”이라며 “해조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식품, 미용, 소재, 의약, 바이오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조류 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고 군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6만 완도군민과 30만 향우들은 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박람회가 열리는 2014년을 ‘고향방문의 해’로 정하기도 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종식 완도군수는 “해조류는 완도의 전통산업이며 지역경제를

■ 완도군 해조류 관련 현황

양식장면적

▶ 2만2808ha

해조류 생산 어가

▶ 9039가구

연간 해조류 생산량

▶ 37만4000t

해조류로 인한 소득

▶ 1500억원



해조류박람회 주제관 조감도

조성된다.

생태관은 국내외 청정바다 속 해조류 등 바다생물들의 삶과 생명탄생에 대한 내용으로, 식품관은 점차 고갈되는 육지식량지원을 대체하는 해조류가 식품으로서의 역할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각각 꾸민다.

완도 앞바다에는 해조류체험장이 조성돼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바다 체험을 할 수 있고, 장보고유적

지에는 문화관으로 조성하고 주변에는 각종 부대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주제관은 2014년 박람회 주제에 맞춰 영상물과 전시물로 구성하고, 주제관 건물에 올라서면 완도바다를 공중에 떠다 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장좌와 망석리, 군외면 영흥리 앞바다를 아촌체험장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해조류박람회는 김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0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한편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장은 2만2808ha를 9039어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연간 37만4000t 생산해 1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명품 토판염 생산

해남군 문내면 세광염전에서 최근 명품 토판염 생산이 한창이다. 토판염은 것벌을 단단하게 다져 만든 염전 바닥에서 재래 방식으로 생산된 소금

으로, 현재 해남 문내면에는 1만여평 가량이 남아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장성 ‘희망오케스트라’ 창립 3개월만에 첫 무대 오른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 구성)

내달 8일 목포 드림오케스트라 연주회 참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으로 구성된 장성의 ‘희망오케스트라’가 다음달 8일 드디어 첫 무대에 오른다. 공식 출범한 지 약 3개월만이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희망오케스트라가 다음달 8일 목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드림오케스트라 가족 초청연주회’에 참가, 다른 지역의 아

동들과 함께 협연을 통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군은 지난 4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지역본부와 장성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관리 대상가구의 아동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매주 2차례

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연 이후 군은 올해 말 자체 공연을 개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이들이 음악과 함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꿈을 이루려는 아이들의 연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대리교차로

우회도로 운영

의산지방국토관리청은 24일 “호남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휴가철마다 큰 불편을 겪는 화순 대리교차로 부근과 부안 변산해수욕장, 체석강 인근 지역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운영한다.

광주에서 너릿자리 터널과 화순 대리교차로를 거쳐 국도 22호선, 29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광주에서 광주대~영남~능주 방면으로 우회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또 변산해수욕장과 체석강 이용 시 정체를 피하려면 지방도 736호선을 이용, 자서삼거리에서 하서면 방면, 마동삼거리에서 서유저수지 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 새 얼굴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심혈”

정근택 해남부군수

“전남 제일의 응군 해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정근택(57) 해남부군수가 취임했다.

정 부군수는 “농·수·축산과 문화관광이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소득 창출과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민과의 소통은 물론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군수는 담양 출신으로 1978년 공직에 입문해 2001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구례군 의회전문위원, 전남도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처를 거쳐 지난 2012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으로 재직했다. 부인 임명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광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명랑해결단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윤석, 이유리, 서경석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8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임동기자 exian@